

“참나 속에 대자유가 있으니 정진 다해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동화사 방장)

진리의 대도는 둔점(頓漸)이 없음이요, 오직 사람들의 근기에 점수(漸修)와 돈오(頓悟)가 있음이로다.

마음, 마음, 마음이여!
가히 찾기가 어려움이로다.
찾으려 한 죽은 그대가 가히 보지 못함이로다.
무심(無心)히 앉아 있으니
마음도 무심히 앉아 있음이로다.

대중은 보고, 불지어다. 금일은 동안거 해제일입니다. 모든 대중은 과연 석 달 동안 부끄러움 없는 수행을 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 머리를 깎고 부처님 법에 귀의한 것은 마음을 깨달아 만인을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자기기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이 부족하고 원인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더 이상

중생의 습기에 놓아남이 없어야 합니다. 이 공부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의심으로 화두일념삼매(話頭一念三昧)에 들어 죽었다 살아야 성취되는 것이라, 보는 것 듣는 것을 다 잊고 깊은 삼매에 들어 화두가 흐르는 물처럼 끊어짐 없이 흘러가야 되는 법인데, 그러지 못하고 문득 알았다하는 것은 정해정식(情解情識)에 떨어진 것이요, 사도(邪道)에 떨어진 것이니 알았다는 생각은 다 내려놓고 선지식의 바른 지도하에 실답게 정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바른 자세부터 갖추어야 되는 것이니, 대오견성(大悟見性)하여 선지식께 인가를 받는 날이 바로 해제다는 공은 다짐을 하고 바깥을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해제했다고 이산중 저산중 기웃거리고 이 스님 저 신도 만나고 다닌다면 이는 허송세월은커녕 중생의 습기만 더 키우는 일이요 죽음을 다다라서는 후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대오견성으로 해제를 삼고 이 공부를 마치기 전에는 비랑을 짊어지고 산문 밖을 나서지 않으리라는 공은



각오를 다져 정진에 정진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참나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산승의 법문을 듣고 있는 주인공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모든 곳에서 주인공이 되어, 무애자재(無礙自在)하게 수용합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의존하

지 않고 모든 가치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모든 종교와 정치제도, 문화적 제약에서 벗어난 절대자유인이 되는 것이니, 인류의 희망이 참나를 깨닫는데 있고, 미래가 여기에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참나를 깨달아 마음의 고향에 이르러 다 같이 영원토록 대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우선, 먼저 참나를 깨달은 눈빛은 ‘참스승’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광대무변하고 심오한 마음의 고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눈 빛은 스승을 만나 대오견성의 발원을 확고히 하여 모든 분들이 각자 일상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 하고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일러 참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참선으로 일념(一念)이 지속되는 과정은 이루어야 마음의 고향에 이르게 되어 일월(日月)과 같은 밝은 지혜가 열리는 동시에 큰 자비와 사랑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인류가 나와 더불어 한 몸이 되고, 온 세계, 유정무정(有情無情)이

다 나와 더불어 한 집이 되어 대평화를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참나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우선, 참선은 앉아서 익히는 것이 가장 쉽기 때문에 먼저 좌선을 익히도록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좌복 위에 반가부좌를 하고 앉아 허리를 곧게 하고 가슴을 편 다음 두 손은 모아서 배꼽 밑에다 붙입니다. 눈은 2미터 아래에다 화두생각을 두고 응시하되, 혼침과 망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눈을 뜨고 의심에 몰두해야 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무르익어지고 나면, 일상 생활속에 가나오나 앉으나 서나, 일을 하나, 산책을 하나, 잠을 자나 오매불망 간절히 화두의심에 몰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천번 만번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 하고 오매불망의 의심을 쫓 밀고 또 밀고 또 밀 것 같으면 모든 산란심이 일어날 틈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마음의 고향에 이르면 멋진 자유와 행복과 세계평화를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해제 결제 구별 말고 참구하라

해인총림 방장 법전 스님

어떤 남자가 물었습니다. “달마대사께서 9년동안 면벽(面壁)한 뜻은 무엇입니까?”

자명(慈明)선사가 대답했습니다. “풍년인데 소득이 없었느니라.”

같은 질문에 양기(楊岐)선사는 말했습니다. “서천사람이 중국말을 몰랐느니라.”

똑같은 물음에 회당(晦堂)선사는 말했습니다. “추위도 덮을 이불이 없었느니라.”

달마대사는 소림굴에서 9년을 석 달 삼아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벽관바라문으로 불렀습니다. 9년 만에 결제를 마친 것

입니다. 이러한 소림굴 결제의 깊은 뜻에 대해 많은 선지식들과 남자들이 문답을 나누는 것이 ‘9년면벽’ 공안(公案)입니다.

황룡선사는 해제와 결제를 구별하지 않는 공부법을 말했습니다. 첫째, 베풀기가 쉽지 않다. 둘째, 교화하기가 쉽지 않다. 셋째, 날 것을 익힌 것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다. 넷째, 가만히 앉아서 공양 받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해제 후에는 베풀면서 다녀야 합니다. 해제 후에는 교화하면서 다녀야 합니다. 해제를 해도 여전히 날 것인 화두를 꼭 익힌 화두가 될 때까지 늘 정진해야 합니다. 해제 때에는 공양받기 보다는 공양시킬 일



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남자라야만 진정한 만행남자라고 할 것입니다. 해제대중은 달마대사의 9년면벽에 대한 자명, 양기, 회당선사의 답변 가운데 누가 과연 ‘돌로 만든 호랑이를 한 방의 화살로 제대로 쏘어버린’ 안목인지, 이 자리에서 한번 가려보기를 바랍니다.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번뇌 꿈에서 깨어나자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옛것까지 매섭던 북풍혹화 사라지고, 어느 덧 선암사 천년매화 꽃봉오리가 돌아오는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 현상에서 사부대중 여러분은 우주 삼라만상 만물 모두가 무상한 것인데, 영원하다고 집착하는 무지에서 번뇌와 괴로움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념으로 무량겁을 널리 관하여(一念普觀無量劫)

오고 감과 머무름 또한 없음을 보고서(無去無來亦無住)

이와 같이 삼세를 모두 안다면(如是了知

三世事)

모든 방편 뛰어넘어 실력을 이루리라(超諸方便成十力).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일념은 무상찰나(無常剎那)이고, 무량겁은 한없는 세월을 말하는 것으로 일참나 순간에 한량 없는 세월을 꿰뚫어 보는 것.

즉 깨달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 인생 모든 일 만사가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도 없고, 생겨서 오는 것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진정한 수행자라면 꿈속에서 소금이 짜고 불은 뜨겁게 느끼는데, 이것은 오직 꿈꾸는 사람의 생각이 꿈이 꿈인 줄 모르고,



염연한 현실로 착각하는 것일 뿐인 것처럼 현실도 우리가 생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몸 금생에 닦지 않으면 백천만겁에 불법 만나기가 어려우니 허송세월만 보내지 말고 하루빨리 번뇌 망상의 꿈에서 깨어나야 하겠습니다.

하심하면 천하가 다 내것이라

조계총림 방장 보성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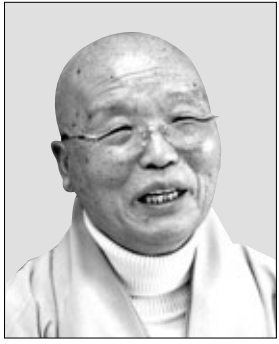
지금 중단 내외는 좀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부처님법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부처님 법에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복구하는데 뜻을 모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대승불교도 없고 소승불교도 없습니다. 이 지구촌 전체가 불교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떠나서 불교를 구할 데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아무리 외도 법을 행하더라도 우리는 나무랄 것도 없고 비난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

리 대중들은 오직 부처님 법을 따라서 수행해야 하였습니다. 새 법을 내지 말고 오직 출가자들이 어떻게 부처되는가를 살피서 정진하면 됩니다. 새로 내는 법은 다 위조 법입니다. 원효 스님도 말씀했습니다.

夫諸佛諸佛이 莊嚴寂滅宮은 於多劫海에 捨欲苦行이요 부제불제불이 장엄적멸궁은 어디겁해에 사육고행이요

사상산이 점고하면 삼도해가 익심이라. 四相山이 漸高하면, 三途海가 益深이라.



내가 오직 바른 정진, 애써 노력하겠다는 것이 부족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욕심 버리란 말이요, 하심 하세요, 고개를 꼭 숙이고 보면 천하가 다 내 것이라. 주장자를 세 번 치고 화좌하시다.

불성은 이미 이 몸 속에 있습니다

금정총림 방장 자유 스님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항상 사로잡혀 삽니다. 자유롭고 싶지만 생각에 묶여 작용을 못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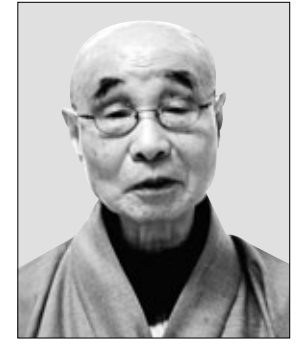
공부에 애를 쓰지만 깨닫지 못하는 원인은 상(집착)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서 생각을 내려놓고 방하좌 해야 합니다.

과거 석가모니불이나 달마대사와 똑같이 되고 싶으면,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그놈을 찾으면 됩니다. 빛을 보고 있고, 냄새를 맡고 있는, 바로 그놈이 과거의 석가모니

불이고, 달마대사입니다. 석가모니불과 달마대사, 역대 조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이놈을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밖에 따로 진리가 있다고 여기면 항하수처럼 오랜 세월이 지나도 몸만 수고롭지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생각이 있는 놈이 나이고, 보고 있는 놈이 나입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생각입니다. 생각을 떨어트리면 저절로 알아집니다. 무엇을 아느냐? 예를들어 종소리를 듣고 있는 자기를 알게 됩니다. 상대를 보고



있는 자기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중생은 날마다 이 몸을 끌고 다니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물건을 모릅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불성은 이미 이 몸에 있습니다.

오로지 화두지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 뿐

영축총림 방장 원명 스님

爲愛尋光紙上鑽이여 不能透處幾多般가 忽然撞着來時路하면 始覺平生被眼瞞하리라

밝은 빛을 좋아해 문중이를 두드림이여! 나갈 수 없는 곳을 향해 얼마나 부딪쳤던가? 그러다 문득 들어왔던 길을 만나고서야 평생 동안 눈속임 당한 줄 알게 되리라.

파리는 창문이 닫혀있는 줄 모르고 밝은 빛만 좇아서 날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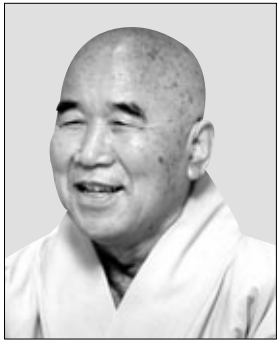
날아가 부딪치고 또 날아가 부딪치고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명 중생의

어리석음이 이리합니다. 모두들 생사가 두렵다고 하면서도 정작 벗어나려는 마음 내는 사람은 적습니다. 잠깐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있어버립니다. 그러다 고통이 닥쳐온 뒤에서야 후회합니다.

‘왜 미처 용맹심을 내어 떨쳐내지 못했던가’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저 미충인 파리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모두들 근본은 있어버리고 외형으로만 치닫고 있습니다.

세상 어떤 일이 급하다 해도 생사만 한 것이 없습니다. 이 놈은 폭포처럼 거침없이 흘러갑니다.

혈맥임을 멈추고 스스로 눈속임 당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때입니다. 어떻게 해야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오로지 화두를 굳게 지니고 두려움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로 맞서는 것 뿐입니다. 출렁이는 업식의 물결이 잠깐 고요한 그 때를 놓치지 않는 명안남자가 되어 산문을 나서기 바랍니다.

한번 사람몸 잃어버리면 어느 때 돌아오는가?

쌍계총림 방장 고산 스님

법상(法相)에 올라 주장자(拄杖子)를 세 번 치고 이르시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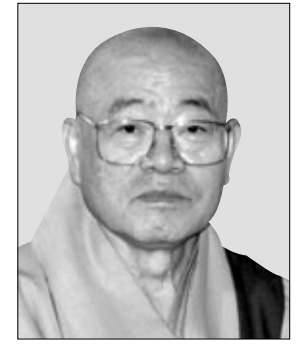
시정(市井)과 산간(山間)에서 남자(衲子)들이 놀기만 하니 알아 얻은 심인(心印)을 누구에게 부쳐줄고? 만약에 한번 빼어 사무치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해골이 광야에 두루 가득히 흩어지리라.

대저 산에 들어가서 수도하는 이는 이 무슨 사람인고? 만약 또한 알아 얻었으면 또 한마디 일러보라.

잠간 있다가 ‘할’을 한번하고 이르시되, 한주먹으로 사천(四天)하를 타파(打破) 울

다. 모름지기 이러한 사람이라야 이러한 법을 성취하리니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어찌 호랑이 새끼를 얻으리요. 비록 호랑이 굴에 들어갔을지라도 만약 번개처럼 치지 아니하면 도리어 몸과 목숨을 잃으리니 어찌 이에 방심하여 머뭇거리리오.

이런 까닭으로 세존께서는 저 설산(雪山)에서 6년 동안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달마께서는 저 소림굴에서 9년 동안 면벽(面壁)하시니, 후래(後來)의 남자(衲子)들도 응당히 이와 같이 해서 옛것을 돌이켜 비취보는 것이 또한 옳지 않겠는가? 계승으로 이르시되



한번 사람 몸을 잃어버리면 어느 때 돌아오겠는가?

지옥의 고통이 긴데 어찌 등한히 하리오.

금생에 만약 이 말을 좇지 아니하면 병들어 누워 신음함에 한이 다함없으리라.

만법 일여, 원융무애의 자리까지 정진합시다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벌써 해제를 맞게 됐습니다. 겨울동안 정진들 하시느라 고생들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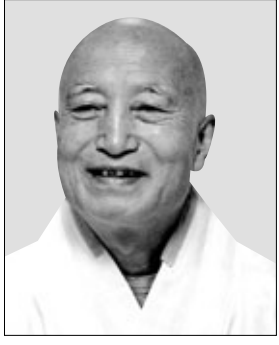
우리는 그동안 결제와 해제를 통해서 연마(研磨)를 거듭해 왔습니다. 물론 정진하여 得力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경(究竟)을 성취(成就)하여 생사명근(生死命根)이 끊어질 때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시겁(無始劫)으로 익혀온 탁습(習)이 정진을 할 때에는

찾아드는 듯 하다가도 조금만 방심(放心)하면 또다시 오욕(五慾)의 불꽃이 일어나 정진력(精進力)을 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고 정진합시다. 자성(自性)이 드러나서 임운등등(任運騰騰)하고 등등임운(騰騰任運)하여 본래로부터 밝고, 본래로부터 당당하고, 본래로부터 지혜로워 만법(萬法)이 일여(一如)하고 원융무애(圓融無礙)한 그 자리에 도달할 때까지 정진하십시오.

고인(古人)이 말하기를 금생미명심(今生未明心)하면 적수야난소(滴水也難消)라 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한량없는 부처와 祖師가 항상 나타나니 풀, 나무, 돌 그대로 화엄의 세계요 법화의 세계여라.

백천법문(百千法門)과 무량묘의(無量妙意)가 다 흡사 연꽃이 피는 듯 하니 이제(二際)와 三際를 어느 곳에서 찾을 것인가?

이 세계가 그대로 우리의 스승, 진리의 도량

고불총림 방장 지선 스님

불교가 어떻게 참선이 어찌고 하다가 청춘이 다 가버리고 깨달음이 어떻게 조사(선지식)가 어찌고 하다가 백발만 무성하네. 어느 곳에서 부처와 조사의 깊은 뜻을 찾아볼 것인가?

머리 숙여 집집마다 봄을 활짝 피게 함이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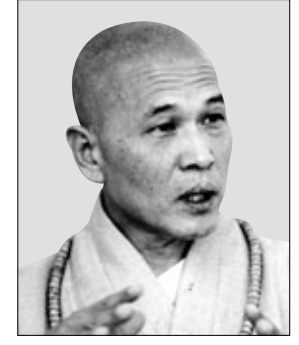
어느덧 진정으로 해제 아닌 해제날이 왔습니다.

수행자에게는 시시처처가 모두 결제요, 대장부 일대사가 해결되는 날이 진정 해제

날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잠시 나가시면 따로 각기 무엇을 구하거나 찾으려 하지 말고 유정무정 두드물물이 꼭 찬 이 세계가 그대로 우리의 스승이요, 은혜요, 진리의 도량이니 서로서로 모시고 나누고 도와서 받들고 감아야 하는 깨달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땅 파고 기계 돌리고 땀 흘려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살펴보고 그 속에서 소외되어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갖가지 고통과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하며 그동안 닦고 노력한 몸과 마음의 땀땀을 점검해



보십시오, 이런 실천이야말로 수행하는 사람들의 자기 확인이요, 살아있는 정진의 연장입니다.

옳고 실천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본인은 물론 전체가 그 역시 불안한 갈등이 유발되니 사무치게 느끼고 반성해야 합니다.